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 2004년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지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도쿄 일극화'라고 알려진 일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34.4%, 영국과 프랑스는 25% 수준이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크다.

이처럼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의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구, 자본, 물류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떠나고 공장들은 텅 비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53.3%)이다. 비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간 지방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 같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목포, 순천, 광양, 무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가 소멸위험지역이다. 이 중에서 11개 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2 이하인 소멸고위험지

지방소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 대안

역이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농촌과 중소도시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 인구 규모마저 붕괴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더라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상반기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추진'을 못 바꿨던 지난해 초와 거리가 있다.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보다 지난해 7월 밝힌 정책 후보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도 '상반기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추진'이 명시됐다. 그러나 7월에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24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아예 넣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수도권 논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인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 집중화 완화(공정)와 인접지역 공동화 유발(부정) 등으로 엇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2005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1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역전 시점은 9년 늦춰진 2020년이였다. 공공기관이 한참 이전하던 2011-2016년 사이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줄어들고 지방으로의 유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으로 잠시 멈춘듯 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은 2020년대 들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사라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청년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연구결과이다. 전남도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 마련과 함께 전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및 지역대학과 연계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농·수협 중앙회 등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법이다.

국가적 재앙인 지방 소멸에 대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머무러갈 시간이 없다.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여야 지도부는 함께 일어서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여야가 5·18의 대승적 정신으로 지역 소생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합의하고 거점 혁신도시 육성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주길 바란다.

수필의 향기

'호떡'이 있는 풍경



김향남 수필가

우리 마을에는 일주일에 두 번 '호떡 차'가 옵니다. 시내와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한적한 시골처럼 외떨어져 있는 데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익숙한 게 더 많은 동네거든요. 물론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어디건 무엇이건 배달 가능한 시대니까요) 때마다 일어나는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틀테면 간단한 군것질거리라든가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몇 개쯤 더 있어도 좋겠다 싶은 거죠.

그게 통째로 '호떡'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내건 트럭 한 대가 이곳을 찾아옵니다. 호떡을 굽고 어묵을 조리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개조한 푸드 트럭입니다. 선 거철에 드나들던 시골벽적 요란하던 것과 달리 조용하고 소박한 꾸밈새가 얼마나 반갑고 정다운지요. 붉게 밝힌 두 글자는 확성기보다 또렷하고 더 당당해 보입니다. 소리 없는 등장에도 눈에 띄는 위풍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호떡 차'의 주인은 우리에게 가격 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루한 후유에 '별미'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틈에 생기를 불려다 주니까요.

일주일에 두 번, 저도 시간 맞춰 밖으로 나갑니다. 오후 서너 시, 눈은 침침 벅 벅은 출출 엉덩이는 들쭉들쭉, 잠시 콧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산책이란 걸 하게 되나 종일 그것만 바라고 있는 우리 '명명'이에게도 한계점에 다다른 때입니다. 게다가 저 '호떡 차'는 어떻게 제가 쉬는 날을 딱 맞춰 오는지요. 팬스레 곱잡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니 나갈 수도 없습디다.

밖으로 나온 저는 먼저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갑니다. 차가 와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죠. 왕래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일기로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정문 쪽이 낫지만, 그쪽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쪽에 자리를 잡았으나 곧장 쫓겨나오고 말았다는군요. 여기는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피해를 줄 가계도 없고 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드문 드문 산책 나온 사람들이나 몇 있을 뿐인데, 혹시 몇 개 팔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지레 걱정이 앞섭니다.

'호떡 아저씨'가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님도 두어 사람 그 앞에서 서있군요. 옛그제 비 오고 바람 많이 불던 날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해 보이던지요. 저는 우선 발걸음 돌리려고 합니다.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느릿느릿 걷고 와도 좋겠습디다. 고고와 고갱, 클림트와 모네의 그림들이 나란히 전시(설치)된 담장 옆을 지나, 아카시아꽃 향악이 핀 개천을 지나, 다리 건너 한창 개업 준비 중인 '삼겹살과 파스타' 가게를 지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 사이 해는 더 기울고 붉게 켜놓은 '호떡'의 불빛도 더 짙어져 있겠네요.

그런데요. 호떡, 하면 왠지 따스한 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운 추억의 한 장면처럼 말이에요. '호(胡)'라는 글자가 앞서 중국식이라는 걸 말해준다고는 하지만, 호호 불며 먹던 뜨겁고 달콤한 맛은 이미 우리 입맛을 사로잡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설탕과 계피로 맛을 낸 단순한 음식은, 가난한 우리들의 '소울 푸드'라고 할까요.

학교 앞 포장마차에는 늘 호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디다. 구수한 냄새에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반질 반질한 철판 위에 지글지글 노릇노릇, 그 동글납작한 것의 맛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트럭 앞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얼핏 예닐곱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권공도 두엇 끼어 있습니다. 그새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공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손님은 거의 어른들로 보입니다. 글세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옛날 옛장수 가위질 소리에 집안의 고물들 찾아들고 부리나케 달려가던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길 가다 사 먹었던 그 호떡 맛이 새삼 그리워졌을까요? 줄지어 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호떡 아저씨'의 손길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늘지도 절지도 않은 그의 표정에는 수줍은 듯 얇은 미소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굽은 듯 수그린 어깨가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중고등학생쯤 되겠다 싶군요. 철판에서는 호떡이 노릇노릇 뜨겁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기고

다시 책으로



이승오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20년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전문직이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서 담당했던 많은 업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들라면 독서교육이라 말하고 싶다. 교육국장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나, 아미산 자락에 터를 잡고 살면서 멀리 무등산을 바라보다가도 광주교육 소식이 들려오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광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직은 식지 않았을리라.

최근에 시교육청의 '독서교육 내실화 추진 계획'을 살펴볼 기회가 있어 꼼꼼히 읽어 보았다. 광주 독서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내실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중심 독사·토론·논술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 등 네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서 전체를 통해 필자가 파악한 광주 독서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학교 급간 독서교육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독서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

학교에서는 독서 토론으로 소양을 함양하고, 독사·토론·논술로 사고력 신장에 역점을 두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독서교육의 로드맵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독서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야 부러부러 학생부 기재용으로 진로 관련 책 몇 권을 읽고 마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초·중·고 연계 독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둘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독서 기반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최근 대입 수능시험에서 이른바 길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문해력 기반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교과연계 독서수업의 활성화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독서를 바탕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교육의 성패와 직결된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AI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은 미래 핵심역량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은 독서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지자체의 참여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광주시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교육청과 함께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해 매년

가칭 '빛고을 책 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북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양대 문화사업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에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머지않아 AI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I 시대에도 인간만의 독창적인 능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독서는 인간의 심층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다. 많은 석학들이 AI 시대에는 독서를 통해 인간만의 역량을 신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 내실화 방안은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중독에 빠져있는 광주 학생들을 '다시 책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전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광주 학생들로 인정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광주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찌 잊겠는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찌릿찌릿 울리던,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서재를 정리하다 펼쳐 본 '책은 도끼다' (박웅현 저)에 나오는 저자의 말 중 일부이다. 멀리 보이는 무등산이 오늘따라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

社說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야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 즉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 방식이 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말잔치에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8일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온 여야 대표들은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을 표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이 광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로 헌법정신이자 '자제'라며 헌법 수록에는 찬성한다면서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녹여내는 '포괄적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원포인트 개헌'보다 포괄적 개헌에 힘을 실는 발언을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

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수진영 정치권이 포괄적 개헌론을 꺼내든 저의가 이번에도 뒤통수만 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포괄적 개헌으로 갈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통령 중임제 등과 함께 추진하는 만큼 개헌이 늦어지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에도 5·18 기념사에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보수진영이 진정으로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찬성한다면 이제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5·18만 담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야 한다.

제도입 추진 '택시부제' 시민 불편 없어야

광주시가 경영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택시부제' 제도입을 추진한다. 강제 휴무제 도입 택시부제는 1973년 도입된 후 지난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50년만에 해제됐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들마저 심야 운행을 기피, 심야시간대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판단,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으며 광주지역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부제 제한 이후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신청, 택시부제 제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인택시 업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부제 해체에 따른 택시 과잉 공급 및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 택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수익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 대수는 24.8% 감소했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제 해제 요건 중 하나인 법인택시 기사 감소 현상이 사라지면서 법인택시잡기가 심야시간대만 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택시부제 제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 제도입을 승인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부제를 해제하는 '탄력적 택시부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당시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시는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제 운영 계획을 마련,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해군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은 1992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문어포 앞바다에서 16세기 말 귀함(歸帆)자총통(龜鑿別黃字銃筒)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총신(銃身)에는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龜鑿黃字歸帆船一身鎗必水葬)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언론은 '거북선서 소년 포(砲)' 찾았다. 이순신 해전 임종 국보급 유물'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이 총통은 곧바로 국보 274호로 지정됐으나 불과 4

자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그의 행적을 담았다. 구석기를 대표하는 뎡석기를 만들어 구멍이를 파고 뚫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분이 일어나 구석기 유적 조사의혹에 휘말린 일본 베타 대학의 한 교수는 목숨을 끊기도 했다.

조작의 종말

일본의 후지무라 신이치는 1980년대 3만년 전으로 알려진 일본 구석기 시대를 70만년 전까지 끌어올린 스타 연구자였다. 고졸 학력으로 아마추어 연구자였던 그는 10년 동안 구석기 역사를 바꾸는 발굴 결과를 매년 내놓았다. 매년 일본 교과서 개정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의 놀라운 발굴은 현대의 날조로 드러났다. 마이니치 신문 기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으려 서류를 허위 작성해 기소됐다. 육경합부 는 불교의 6개 경문을 하

나로 모은 책이다. 그는 2016년 11월 제3자에게 육경합부를 6000만원에 구입하고 서도 오래 전부터 대대로 소장해온 것처럼 서술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역사를 증언한다. 아무리 정교하게 조작하고 꾸며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검증은 피할 수 없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는 이치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